

기도편지 10월

안녕하세요. 태국 방콕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독교의 불모지였던 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과 성을 다하던 홍정훈 선교사님이 9월 2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태국에서의 장례식은 은혜가운데 치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 처음에는 한국으로 철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리고 홍정훈 선교사와 제가 너무 사랑했던 방콕 SFC와 복음교회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기에 기도 가운데 제가 홍정훈 선교사의 사역을 방콕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콕 복음교회가 3년전 세워진 후로 늘 함께 예배 드렸던 홍정훈 선교사 없이 예배 드린 지 벌써 한달이 흘렀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 덕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고 홍정훈 선교사가 목숨같이 지켰던 매일 매일의 기도회 또한 홍정훈 선교사의 뜻을 이어받아 성도들과 함께 하루도 빠짐없이 그 기도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홍정훈 선교사가 늘 기도제목으로 내 놓았던 복음교회의 비아, 찜찜, 텐, 안 네 자매가 SFC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홍정훈 선교사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이 복음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 상황이 너무 마음 아프지만 홍정훈 선교사가 살아있을 때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억하며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홍정훈 선교사 없이 제가 그 사역을 이어나가지만 계속해서 복음교회와 방콕 SFC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역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20200923
Youngjak

사역 이야기

대학 캠퍼스 사역은 세곳 대학(쥘라롱콘, 시나카린, 람캄행)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캠퍼스 사역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태국으로 들어와서 태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다



가 2018년11월에 방콕 복음교회(Bangkok Gospel Church)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수는 태국성도 18, 한국성도 10명, 한국 협력선교사1명, 미국 협력선교사 2명해서 약 30명이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은 1시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태국 청년들이 빠지지 않고 기도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어서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회로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5명의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믿은지 8개월)와 퀸(믿은지 2년) 자매가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문답 교육을 1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아, 텐, 안 자매는 4학년 2학기로 학부졸업을 한학기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 세자매는 내년 방콕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준비하고 있고 찜찜 자매는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여러 상황들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지만 남편 홍정훈 선교사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욱 견고한 믿음과 사명을 주셔서 이 자매들이 사역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큰 결단을 하였지만 이들의 처한 상황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용기있게 결단하고 부르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들이 흔들림 없이 사역자로 잘 준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끝까지 부르심을 잊지 않고 태국 SFC와 태국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가족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자님들의 사랑의 기도 덕분에 가족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9학년 희주 7학년 성주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사랑과 기도 덕분에 아빠를 잃은 그 슬픔을 잘 참고 다시 차분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와 성주가 아빠의 믿음을 이어받아 태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 지식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격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99%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태국 민족이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태국 대학 캠퍼스에 SFC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3. 태국 교회와 SFC를 이끌어갈 리더(비아, 안 텐, 점뎀 자매)들이 잘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4. 비아 텐, 안 자매가 졸업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사역자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5. 방콕 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출석하는 15명의 태국 청년들과 3명의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고 교회의 일꾼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6. 가족 모두 늘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7. 홍정훈 선교사의 후임 선교사가 빨리 와서 방콕SFC와 복음교회를 함께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후원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계속 기독교의 불모지 태국의 복음교회를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은 562101-01-530087 국민은행(이지원)으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정훈 이지원 올림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 Jim Elliot -



20200923
Youngok 